

국내항공사, 62억원 손실... 4년간 조류충돌사고

지난 92년부터 4년간 국내 항공기들이 새들과의 충돌사고로 입은 피해액이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항공진흥협회에 따르면 국내 항공기가 이·착륙 도중 조류와 충돌한 사고는 ▲92년 27건 ▲93년 41건 ▲94년 39건 ▲95년 8건 등 모두 1백15건에 이른다.

공항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김해국제공항 29건, 제주국제공항 10건, 기타 42건 등의 순이었다.

김포공항에서 조류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공항 주변에 논과 밭이 많고 한강이 관통해 새들에게 좋은 휴식처와 먹이를 제공하는 지리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류와의 충돌에 따른 엔진 파손, 좌열, 운항 정지 등으로 지난 4년간 국내 항공사들이 입은 재산 피해는 대한항공 51억원, 아시아나항공 11억원 등 62억원이다.

아시아나 항공, 58대 계약... A330과 777 등

아시아나 항공은 올해에 체결

된 최대의 대형기 주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 58대의 새로운 에어버

스 A330기와 보잉 777, 747-400, 767-300기의 주문을 위한 계약에 서명하였다.

동 항공사는 새로운 대형 항공기의 선정을 마무리하고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와 합의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두 개의 동 계약서는 추가 20대의 옵션을 포함한 총 38대의 새로운 항공기 주문을 다루고 있다.

항공기의 인도는 1998년에 시작되어 2006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 주문은 두 경쟁사간에 거의 균등하게 분할되었는데, 에어버스의 거래 몫은 18대의 A-200/300기와 10대의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다. 보잉사는 15대의 777-200/300(옵션 5대), 747-400 콤비 3대(옵션 3대), 767-300기 2대(옵션 2대)를 맡게 되었다.

이번 구매는 1995년 11월 싱가포르 항공이 777기 계약을 발표한 이후 단일 항공사로 최대의 항공기 주문을 의미하며 동 항공



아시아나 항공은 보잉과 에어버스사에 총 58대의 대형기를 주문했다.

사가 국내 및 국제선에 대한 대한항공과의 경쟁에 박차를 가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아르헨티나 항공협정 가서명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상호 복수취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국에서 항공사지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2차 항공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항공협정에 가서명하고 항공장비와 부품에 대해 서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두 나라간 항공기 직항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가까운 시일안에 추가회담을 열어 북미 지역 주요 도시와의 연계운항 가능성등을 포함, 실제 취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

로 아르헨티나와 정기노선 개설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여건만 조성되면 국적 항공사의 아르헨티나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러, 외국투자자에 투자요구... 공항시설 개선등에

러시아의 국내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러시아 공항 업그레이드의 증가하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떠맡기를 요구 받고 있다고 국제 공항 협회(AIC)가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연간 외국 자본의 요구 분은 5.7-6.6억달러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현재 개선을 위해 65개의 연방/국제 공항에 단지 3억3천600만달러만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 연방의 프로젝트는 러시아 공항 관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공항을 국내 항공사들로부터 분리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90만달러를 지불할 것이다.

러시아 운송부 장관 니콜라이 차크는 공항은 반드시 독립적인 합자 주식회사같이 운영되면서 연방 정부의 지분을 점차로 줄여 지방 당국과 외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일 항공회담 실패로 끝나

민간 항공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2일간의 미일 항공회담은 새로운 회담 일정도 마련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고 미 교통부가 밝혔다.

페나 미 교통부 장관은 회담 실패에 따라 미국은 여러 선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의 대일 제재가 검토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페나 장관은 "우리는 새로운 항공서비스를 논의하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회담이 시작될 수 있기 전에 일본은 현 협정하의 규정을 존중할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미 일본 대사관의 한 관리자는 회담 결렬과 관련, 일본 대표단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당국은 항공회담에서 일본은 먼저 지난 52년 체결된 현존 쌍무항공협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의 쌍무협정은 미국 공항들에 대한 일본 여객기들의 취항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미국에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

ValuJet 공청회 FAA의 실수에 초점

지난주 ValuJet 항공의 사고에 대한 공청회에서의 항공 산업계의 관계자 증언에 따라 의회는 서둘러 FAA의 항공사에 대한 비리와 유독물질의 수송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동 항공사의 회장 루이스 조단은 자신의 낮은 요금의 운송기들은 안전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자신이 운항을 정지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자들이 기내에서 격렬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산소 발생기의 잘못된 처리에 대해 동 항공사의 계약자인 세이버테크사를 비난하며 FAA에 조사를 촉구했다.

교통부의 감찰 장관 메리 패를러 슈아보는 의원들에게 592기의 추락은 FAA가 위험한 운송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열을 강화시켜야 함을 시사해 준다고 말했다.

FAA의 회장 데이비드 힌슨은 동 협회가 동 사의 5월11일의 추락에 대한 관리에 대해 책임을 분담해야 하지만 동사의 급속한 확장과 정비와 훈련의 부족이 ValuJet 직원과 FAA이 활동을 점검하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왔다고 증언했다.